

중국 조선족 구전민요에 나타난 전통의 지속과 변이

조 태 흠*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망향의식과 비가농요의 가창 |
| 2. 조선족 구전민요의 개황 | 5. 사회주의 이념과 의식요의 쇠퇴 |
| 3. 전통적 삶의 지속과 노동요의 전승 | 6. 마무리 |

1. 머리말

중국 조선족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은 중국 조선족을 '월경민족' '이주민족' '천입민족' 등으로 부르고 있는 그 명칭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 조선족은 처음부터 중국 땅에 자리잡고 삶을 영위하면서 형성되고 발전한 민족이 아니라,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에서 중국으로 대량으로 이주하여¹⁾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중국 내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정착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 조선족의 문화에는 이러한 특성이 잘 반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조선족은 18세기 초엽부터 청조의 봉금령을 어기고 중국 동북지방으로 몰래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나, 본격적인 이주는 청조정부가 봉금령을 폐제하고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한 19세기 중엽부터이다. [「조선족략사」 (조선족략사편찬조편, 연변인민출판사, 1986), 13쪽]

영되어 있다. 그들은 중국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문화를 자생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에서 형성된 민족문화를 가지고 중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조선족 문화는 본토 문화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민 초기의 문화는 본토 문화의 연장선이나 복사에 가까운 형태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필경은 본토 문화와 다른 문화공간에서 재조합되고 발전되어 온 것만큼 많은 부동성을 띠고있는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것은 부동한 문화환경에서 이루어진 변이와 타민족 문화와의 접촉, 충돌, 적응에서 나타난 변화와 각이한 제도문화에 의해 이루어진 부동성이다.²⁾

본토 문화의 '연속성'과 '부동성'이라는 중국 조선족 문화의 두가지 특징은 조선족의 문학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³⁾ 특히 민요나 설화 등과 같은 구비문학에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재 조선족의 구비문학 가운데는 이주 1세대들이 옮겨간 조선에서 전승되던 민요나 설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본토와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으며, 중국이라는 새로운 자연환경, 사회·역사적 현실, 그리고 정치 이념과 현실생활 아래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창작되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민요나 설화와는 부동성을 보여주는 작품도 있다.⁴⁾

본고에서는 조선족의 구전민요를 대상으로하여 조선족 구전민요에 나타난 이러한 연속성을 전통의 지속이라는 면에서 그리고 그 부동성을 전통의 변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여 조선족 구전민요에 나타난 전통의 지속과 변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본질적으로 실제 작품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 김경일, 「중국조선족문화론」(요녕민족출판사, 1994). 9쪽

3) 조선족 문화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이 중국 조선족 문학에도 나타나는데 정판룡은 이러한 성격을 조선족 문학의 '이중적 성격'이라 지적하였다. [정판룡, '우리 문학의 이중성격', 「정판룡문집」(연변인민출판사, 1992), 222쪽.]

4) 중국에서는 조선족 구비문학 작품 가운데 우리나라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반도형'이라 하고, 중국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창작되어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민요나 설화와는 부동성을 보여주는 작품을 '동북형'이라 구분짓고 있다. [김동훈·김도권, 「중국조선족 구비문학에 대하여」,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9」(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편, 민족출판사, 1993) 3-4쪽]

작품의 내용과 형식, 가창이나 구연 방식, 그리고 기능 변화 등을 다루어야 하지만, 연구 대상이 중국이라는 지역적·현실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장론적 연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집된 구전민요 자료집에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집도 제보자, 채집지, 구연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구전민요 자료집을 바탕으로 하여서는 이러한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각 민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유형별 전승양상을 검토하여 그 속에 나타난 전통의 지속과 변이 양상을 파악하기로 한다. 민중들이 민요를 부르는 이유를 일, 의식, 놀이⁵⁾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조선족의 구전민요를 노동요, 비기능요, 의식요로 나누어 검토하여 어떤 유형의 민요가 가장 우리민요의 전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민요가 가장 많이 변이되었는가를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의 지속과 변이된 양상을 보이는 까닭을 조선족의 삶과 관련지어 해명하고자 한다.

2. 조선족 구전민요의 개황

중국 조선족이 그들의 구비문학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4년 중국 공산당의 민족정책이 발표된 이후였다. 그 때 ‘동북조선인민보’와 ‘연변문예’ 등에서 논설을 통하여 조선족 구비문학 수집 정리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민간문학가들이 민담을 수집 정리하여 신문과 잡지 등에 발표하였으며, 연변가무단의 가수들이 전통 민요를 조선족 예술무대에 올려 놓았다. 1956년 연변민간문학위원회의 성립과 더불어 각지의 조선족 구비문학가들은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에서의 지도성원들은 1961년에 민담·민요·민간무용 수집소조를 구성하여 연변·흑룡강성·료녕성의 각지에 내려가 무려 2,400여 편에 달하는 구비문학 작품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5) 민요의 기능과 관련된 ‘놀이’란 일반적으로 놀이를 진행하면서 부르는 유희요와 관련되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유희와는 관계없이 놀이 그 자체로 민요를 노래하는 즉, 유희를 목적으로 부르는 민요인 비기능요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한다.

를 바탕으로 「조선족민간문학자료집 1·2」, 「민요집」 그리고 「항일가요집」과 같은 민요집들이 편찬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문화혁명 기간 중 봉건사상과 민족주의를 설교한 ‘독초’로 몰려 모조리 소각되었다.

문화혁명 이후 1978년 10월에 중국민간문예연구회 연변분회가 설립되고 1980년대 초기부터 다시 조선족 구비문학 작품에 대한 수집·정리·출판 사업이 활기를 띄었다. 이 시기에 간행된 민요집으로는 「조선족구전민요집」·「민요집성」·「민요곡집」·「조선족민요곡집」 그리고 「길림성민간문학집성 연변조선족자치주민요집」 등이 있으며, 이 자료집에 수록된 민요는 무려 800여 편에 달한다.⁶⁾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자료집은 바로 1980년 이후에 간행된 「조선족구전민요집」·「민요집성」·「민요곡집」·「조선족민요곡집」과 1993년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9. 구비문학편(하)」 등 모두 다섯권이다. 이 다섯권의 자료집의 개요와 그 특성을 보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자료 집 내용	조선족구전민요집 (198수)	민요집성 (661수)	조선족민요곡집 (400수)	민요곡집 (356수)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 (220수)
편찬자	리상각	김태갑, 조성일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중국음악가협회 연변분회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출판사	랴오닝인민출판사	연변인민출판사	프린트본	연변인민출판사	민족출판사
출판연도	1980. 10.	1981. 8.	1982. 4.	1982. 6.	1993. 9.
분류방법	로동가요(53) 서정가요(59) 애정가요(53) 서사가요(15) 혁명가요(18)	로동(154) 종자, 해학(50) 생활, 세태(207) 사랑(130) 구전동요(91) 서사민요(29)	로동가요(99) 서정가요(167) 서사가요(20) 종교의식가요(22) 아동가요(23) 혁명역사가요(69)	로동가요(114) 생활풍속가요(97) 서정가요(110) 서정서사가요(35)	로동요(38) 생활세태요(66) 애정요(56) 의식요(14) 서사요(11) 선민요(35)
특징	개인 수집 구전 민요집	문헌보존자료 포함 및 편자수 집 정리자료집 성. 수집자료에는 가창자 표기.	채집장소 표기- 예>연길시, 안도현, 화동현 등 가창자, 채집자, 한 어 번역자 표기. 조식에 의한 곡조 명기	조식에 의한 곡 조 명기 가창자 채보자 표기	가창자, 수집자, 채집년 도 표시 중국조선민족구비문학 작가, 예술가, 민요가창 자에 대한 약력 소개

6) 이상의 개황은 김동훈·김도권의 주4)의 글에 힘입었다.

「조선족구전민요집」은 편자가 20여 년간 수집한 민요를 정리한 개인 자료집이다. 이 민요집에서는 '적지 않은 민요의 제목은 혼돈을 피면하기 위해' 편자 자신이 달았으며, 또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자상의 약간의 수정과 삭제'를 가했으나, '될 수 있는 한 원모양을 보존하는데 힘썼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민요의 분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제보자와 채집지 그리고 채집시기와 구연상황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민요집성」은 660여 수의 민요를 수록하고 있는 최대의 자료집이다. 그러나 이 민요집은 책의 제목에서 암시된 것처럼 편자 자신들이 채집한 자료를 비롯하여 다른 구전민요집에 수록된 민요와 역사상의 문헌에 소재된 민요까지를 총 망라하고 있어 순수한 구전민요 자료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도 이 자료집은 참고대상으로만 삼고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조선족민요곡집」과 「민요곡집」은 민요의 곡조를 조식에 의한 표기법으로 채취하여 표기하고 있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또 이 두 자료집은 모두 가창자와 채집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조선족민요곡집」은 각 작품의 채집 장소를 작품마다 행정구역별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민요곡집」에서는 채집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 두 자료집에 수록된 작품을 검토한 결과 대다수의 작품이 중복되며, 이 중복되는 작품은 그 가창자까지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민요곡집」은 「조선족민요곡집」을 바탕으로 여기에 다소의 첨삭을 가하여 새로 정리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 두 자료집은 모두 민요의 곡조를 채보하고 가창자와 채집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다른 자료집보다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가창자의 경우 그 이름만 밝히고 있을 뿐 그 신상에 대한 기록이 전혀없고 구연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다.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9. 구비문학편(하)」은⁷⁾ 가장 최근에 간행된 자료집 이면서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의 일환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족 민요의 전반적인 특징을 드러내 준다고 생각된다. 또 이 「구비문학(하)」에는 가창자, 수집자, 채집년도가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선민족 구비문학 작

7) 「중국조선민족문학선집9. 구비문학편(하)」를 「구비문학(하)」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

가와 예술가를 소개하는 가운데 민요 가창자 다섯 명의 간단한 약력을 소개하고⁸⁾ 있다. 이 자료집에 이름이 나타나는 가창자는 모두 77명인데 이 가운데 5명의 약력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숫적으로 볼 때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이들 다섯 명이 비교적 많은 수의 민요를 불렀고 또 특색있는 노래를 가창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우리 민요의 전파나 수용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의 구전민요 자료는 숫적으로는 상당한 양이 채집되어 남아 있지만, 그 민요에 대한 제보자, 채집 장소, 그리고 구체적 구연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민요는 창자가 구연하는 사실, 기능, 가락을 갖춘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의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는 창자와 구연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위의 자료들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하여 민요를 유형별로 파악하여 그 유형별 전승양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즉, 어떤 유형의 민요가 가장 우리 민요의 전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민요가 가장 많이 변이되었는가를 고찰한다. 위의 자료집에 나타난 민요의 분류법은 통일되어 있지 않지만, 대체로 기능과 내용, 주제에 의하여 분류하고 있다. 노동요와 의식요는 기능에 의하여 분류되었고, 나머지는 그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 서정, 애정, 생활상태, 생활풍속, 사랑, 서사, 혁명가요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정, 애정, 생활상태, 생활풍속, 사랑 등은 비기능요의 실상을 내용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파악하여 비기능요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고자 한다.

8) 이 책에 약력이 간략하게 소개된 민요 가창자는 다음의 다섯사람이다.

조중주(1914년, 평남 순천에서 출생하여 1943년 길림성 안도현으로 이주), 우제강(1899년, 함북 웅기에서 출생하여 1944년 길림성 왕청현으로 이주), 박종렬(1920년, 충남 대전에서 출생하여 1940년 흑룡강성 동녕현으로 이주), 신옥화(1920년, 경기도에서 출생하여 40년대에 흑룡강성 묵단강시로 이주), 강성기(1916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하여 1943년 길림성 왕청현으로 이주)

3. 전통적 삶의 지속과 노동요의 전승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노동요는 노동을 할 때 노동의 박자와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노동의 능률을 올리고, 동시에 노동의 피로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의 여러 유형 가운데서도 실제적 생활과 가장 밀착된 민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동요의 전승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중국 조선족의 삶의 여러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요는 노동의 종류와 그 성격에 따라 더 세분하여 유형을 살펴 보면⁹⁾ '농업노동요', '어업노동요', '벌채노동요', '길쌈노동요', '제분노동요', '잡역노동요' 등의 중간 분류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 조선족의 노동요의 전승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의 중간 분류항목을 노동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보다 더 세분하여 전승양상을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집 종류	조선족 구전문요집	민요곡집 (조선족민요곡집)	구비문학(하)
논농사요	15	18(13)	8
밭농사요	3	14(15)	4
벌목노동요	0	3(6)	3
길쌈노동요	8	11(9)	5
방아노동요	3	16(13)	2
운반노동요	0	7(7)	0
토목노동요	2	7(6)	0
수공노동요	3	6(6)	2

* 「조선족민요곡집」에 수록된 작품의 대다수는 「민요곡집」 중복지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작품수는 () 속에 표시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족 노동요에는 농업노동요인 논농사요와 밭농사

9) 본고에서 노동요의 분류체계는 박경수의 <민요의 기능별 분류체계>를 따랐다.
[박경수·서대석, 「한국민요·무가 유형 분류집」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Ⅲ)」, (정신문화연구원, 1992)]

요, 길쌈노동요와 제분노동요인 방아노동요 등과 같이 전통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활의 방편으로 삼는 주요 노동요가 현저하게 많이 남아 있는데¹⁰⁾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민요는 노동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비교적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특징을 드러낸다.¹¹⁾ 잡역노동요인 운반노동요는 '목도메기 노래'(3수)와 '물 푸는 노래'(4수)가 남아 전하고, 토목노동요에선 '흙뜨기 노래'(4수) '땅다지기 노래'(3수) '말뚝박기 노래'(2수)가 있고, 수공노동요에는 '풍구노래'만 10여 편 전하고 있다. 이러한 잡역노동요들은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노래된 것으로 주로 농경 관련된 노래들이 남아 전승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족의 민요 가운데 노동요는 그 유형별 전승 양상이 우리 민요의 전통을 지속하면서 전승되고 있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노동요가 그러한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농업노동요 가운데에서도 특히 논농사와 관련된 '논농사요'가 그 양에 있어서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농사요'를 농사일의 순서에 따라 다시 세분하면, 논가는 노래, 논 삶는 노래, 모찌기 노래, 모내기 노래, 논매기 노래, 벼베기 노래, 벃단 나르는 노래, 벼타작 노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족 '논농사요'를 가운데 노래의 제목, 사설의 내용 그리고 후렴구의 성격 등에서 구체적인 기능이 드러난 것만을 골라 농사일의 순서에 따라 다시 세분하여 보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분류 \ 자료집		구전민요집	민요곡집	구비문학(하)
논 농 사	모찌기 노래		1수	1수
	모내기 노래	8수	7수	3수
	논매기 노래	7수	8수	3수
	벼베기 노래		2수	1수

10) 조선족 민요 자료집에는 '배노래' '어부의 노래' '연파만리' '배따라기' 등과 같은 노래를 노동요로 분류하여 상당수를 실어놓았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이 노래들은 '출항에서 귀항까지의 조업과정에서 불려지는 노래'인 어업노동요라기 보다는 오히려 유희적인 배노래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이 노래들을 어업노동요로 다루지 않았다.

11) 박경수, 위의 책, 21쪽.

위에서 보면 농사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뿌리기-가꾸기-거두기’에 해당되는 모내기 노래, 논매기 노래, 벼베기 노래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모내기 노래는 일반적으로 아침소리, 낮소리, 저녁소리로 때에 따라 구분되는데 조선족의 모내기 소리에도 이러한 구분이 그대로 있으며, 그 사실과 후렴구 그리고 가창방식 등 모두가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논농사요와 동일하다.

어허헤루 상사디야
한일자로 들어서서 입구자로 꽃아주소
여기도 꽃고 저기도 꽃고 열방없이 꽃아주소

어허헤루 상사디야
잘도나 하네 잘도나 하네 상사소리 잘도나 하네
이 논배미 얼핏 심고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어허헤루 상사디야
떠들어온다 떠들어온다 점심밥이 떠들어온다
강변에는 잔돌도 많고 세간살이 잔술도 많소

어허헤루 상사디야
오늘 해도 다 갔구나 골풀마다 그늘졌소
일락서산 해떨어지고 월출동령 달쏘아온다.¹²⁾

이처럼 조선족 노동요가 우리나라 민요의 전통을 지속하면서 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그들의 삶과 이러한 민요를 연행하는 집단의 성격과 관련 지어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간 이주 1세대의 조선족들은 그 절대다수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이었으며, 이들은 이주 후에도 중국 동북지방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 짓는 것을 생업으로 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 지역에서 수전을 개간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에서 벼농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19세기 중엽으로부터 동북 각지로 이주해온 조선 이류민들은 업한을 두려워하지 않고 험난과 싸우면서 진땀을 갈아 번지고 물도랑을 빼고 논둑을 만들고 강물을 끌어들여 논을 풀고 벼농사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12) 리상각 편, 「조선족구전민요집」(료녕인민출판사, 1980), 28-9쪽.

동북의 개척사와 경제발전사에 빛나는 한페지를 엮어놓았다.¹³⁾

조선족은 이처럼 황무지를 개간하여 수전을 만들어 처음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 짓는 방법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벼농사를 짓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¹⁴⁾ 따라서 민요를 부르면서 벼농사를 짓던 방법을 몸에 익힌 그들은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요를 노래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옛모습 그대로 전승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조선에서 중국으로 이주해 간 조선족들은 그 절대다수가 농민들로서 경작할 땅을 찾아 중국의 동북지방으로 이주한 농업이주였다. 따라서 조선족들은 조선족끼리 한 부락을 이루고 살면서, 힘을 합하여 황무지를 개간하여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조선족의 촌락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였다.

이민초기와 집단이민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방문화의 군체로 이주하여 그 지방문화를 중심으로 한 촌락공동체를 이루었다. 오늘에 와서도 조선족 집거지의 일부 마을 이름을 보아도 우리는 그 군체의 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길림성 안도현만 보아도 강원군, 경남촌, 전북촌, 등 조선의 도를 상징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강원도 금화군을 상징하는 금화촌, 원주군을 상징하는 원주촌, 함경도 북청군, 신흥군을 상징하는 청흥촌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름은 조선족이 집거한 곳에는 수없이 많다. 이것은 이러한 촌락이 생겨날 때 적어도 지명에 따른 사람들이 주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¹⁵⁾

이러한 촌락 공동체는 바로 생산과 생활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 구성원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단결을 도모하고 동질성을 유지하는 한 수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들어온 지방문화를 향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즉, 그 지방의 민요를 노래하고 민속놀이를 연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안도현 신문에 이주하여 온 경상도 이민들이 생활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조선 민족의 얼이 배인 풍속 습관만은 잃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 농악무를 추

13) 조명철, '조선족의 수전개발', 『길림조선족』(김택 주필, 연변인민출판사, 1995), 19쪽.

14) 중국 조선족들은 "생산노동에 사용하는 각종 농기구와 일상 생활용품까지도 조선에서의 생활 습관과 전통을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쉽게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허명철, '중국조선족문화에 대한 반성과 재건', 『당대중국조선족연구』(김동화, 김승철 주필, 집문당, 1995), 144쪽.]

15) 김경일, 앞의 책, 33쪽.

었으며, 이를 위하여 자체로 자금을 마련하고 도보로 서울에 가서 여러가지 악기와 복장, 상모 등을 사왔다는¹⁶⁾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요가 민중에게 생산력의 향상, 민중공동체의 단결, 신명과 정서 표출 장치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기¹⁷⁾ 때문에 이러한 생산과 생활의 공동체에서는 민요를 노래함으로써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공동체의 단결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조선족 부락 내에는 부락을 단위로 ‘품앗이’, ‘소거리’, ‘둘계’, ‘두레’, ‘황두’ 등 공동 노동을 위한 조직체와 ‘향두’와 같은 상례를 위한 조직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계(契)와 같은 조직체가 있어서 이러한 조직을 통한 공동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해방전 조선족부락의 내부조직을 고찰하여 보면 농업생산을 위한 상호부조의 목적으로 조직된 여러가지 형태의 로력조직이 있었다. 이를테면 《품앗이》, 《소거리》, 《둘계》, 《두레》, 《황두》 등 농사일과 관련된 민간조직이 있었다. 또 부락마다 상례를 위한 조직으로 《향두》라는 것이 있었다. 이외에도 호상지간의 경제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각종 계(契)가 있었다.¹⁸⁾

조선족들은 ‘품앗이’, ‘소거리’, ‘둘계’, ‘두레’ 등과 같은 상부상조의 노동 결사체를 통하여 공동작업을 하였으며, 이러한 공동작업의 과정에서 행동의 통일을 기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여기에 적합한 노동요를 붙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레’와 같은 노동 결사체는 노동조직이면서 동시에 민요를 연행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두레’와 같은 상부상조의 노동조직은 ‘농업합작화’ 이후는 해체되었고 그 대신 생산대나 노인독보조, 부련회, 단지부 등과 같은 사회조직이 구성되었지만, 이러한 상부상조의 조직이 갖고 있었던 전통과 정신은 사회조직 속에 계승되었던 것이다.¹⁹⁾ 상부상조의 노동조직을 통하여 민요를 연행하던 전통도 다소 약화되었을지는 몰라도 이

16) 리천록, 『새마을 농악무』, 『길림조선족』(집백 주필, 연변인민출판사, 1995), 595-6쪽.

17) 나승만, 『민요사회의 사적 체계와 변천』, 『민요와 민중의 삶』(한국역사민속학회 편, 우석출판사, 1994), 106쪽.

18) 박경휘, 『조선족 민속사 연구』(료녕민족출판사, 1987), 408쪽.

19) 김정일, 앞의 책, 129쪽.

러한 사회조직으로 전하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비문학(하)」에는 길림성 안도현 장흥향 독보조의 공동창으로 채록된 '모심기 노래' 18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같은 민요를 연행했던 조선족들은 절대다수가 농민들로서 이들은 동족끼리 촌락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뽕앗이', '소거리', '두레' 등과 같은 공동 노동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황무지를 개간하고 경지를 정리하며 모를 심고 기을을 매는 등 생산활동을 같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런 노동요들은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4. 망향의식과 비기능요의 가창

민요는 반드시 일과 관련하여 부르는 것만은 아니다. 특정한 일과 관련없이 노래하는 것 그 자체가 좋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인 비기능요도 있다. 이 비기능요는 특정한 노동과 관련된 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능요보다는 그 내용이나 형태상 제약이 덜하고, 그 사설이나 가락은 더욱더 세련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정서를 보다 더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중국 조선족들이 평소 가장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민요는 바로 세련된 사설과 가락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비기능요다. 사실 이러한 비기능요가 양적으로는 오히려 노동요 보다도 더 많이 남아있다.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조선족구전민요집」·「민요곡집」·「조선족민요곡집」과 「구비문학편(하)」등 네 자료집에서 노동요로 분류된 작품수는 모두 304수인데 비하여, 애정요·서정요·생활세대·생활풍속 등의 내용별로 분류된 비기능요는 무려 608수로 노동요의 두 배나 된다. 또 조선족은 모임이 있거나 명절이 되거나 혹은 일하다가 잠깐씩 쉬는 참에도 '노들강변', '양산도', '도라지'의 노래가락에 맞추어 흥겨운 춤판을 벌일 정도로²⁰⁾ 이러한

20) 임범송, 「조선문학의 민족적 특성」, 「조선족문학연구」,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9), 61쪽.

노래를 즐겨 불렀던 것이다.

사실 중국 조선족들은 현재까지도 조선민요를 가장 즐겨부른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중국노래, 연변노래, 조선노래, 홍콩노래 가운데서 어느 노래를 가장 즐기십니까?”라는 물음에 제기하였을 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2,000호의 응답자 중 조선노래를 즐긴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는데, 도시에는 550명 응답자 중 347명으로 63%, 농촌에는 1,450명 응답자 중 820명으로 56.5%를 차지하였다.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이 수자로부터 알 수 있는 바 과경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은 의연히 전통적인 민족예술을 사랑하며 특히 조선민요를 즐겨부르고 있다.²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들은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조선민요를 가장 즐겨 부르고 있으며, 특이한 사항은 도시지역에서 오히려 농촌지역보다도 더 민요를 즐긴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들이 즐기는 민요가 농촌사회를 바탕으로한 노동요가 아니라, 비기능요를 즐겨 부른다는 설명이기도 한 것이다. 이들이 가장 즐겨 부르고 가장 많이 부르는 민요를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리랑/ 도라지 / 양산도 / 노들강변 / 풍년가 / 성주풀이 /
새타령 / 한강수타령 / 밀양아리랑 / 천안삼거리 / 사발가 /
닐리리야 /배노래 / 풍구타령²²⁾

조선족들이 가장 즐겨부르고 많이 부르는 이 노래들은 그 대부분이 향토적 정서나 민족적 정서가 짙게 배어있는 서정적 노래들이다. 이들이 노동요를 절실히 생활의 필요에 의하여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노래하며 전승해 왔

21) 강순화, ‘목전 연변조선족의 문화풍습’, 『중국조선족문화연구』(연변대학출판사, 1993). 191쪽.

22) 이 노래들은 조선족 대중가요집이라 할 수 있는 아래 세권의 노래책에 공통적으로 수록된 조선민요만을 간추려 뽑은 것이기 때문에 조선족들이 가장 즐기고 자주 부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노래집 60청춘 닐리리’-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40주년을기념하여-, (연변동북군정대학길림분교사연구회편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2).

‘연변가요무대’-자치주성립40돐기념-, (고창모·강명옥·차명화 편, 1992.)

‘조선족 애창가요집’, (리덕태·최운영 편, 료녕민족출판사, 1994).

다면, 이러한 비기능요는 어떤 의식에서 많이 부르는 것일까.

이러한 민요들이 많이 불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앞의 설문조사에서는 '과경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은 의연히 전통적인 조선예술을 사랑하며 특히 조선민요를 즐겨 부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고향과 고국을 등지고 이국 땅에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갖게 된 망향의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있다.

이주시기에 조선족의 90% 이상은 영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은 언제라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것이다. 이민실록에 기록된 이민 1세대들의 "그 때 집같은 건 형편없이 해놓고 살았다. 그저 아무 때건 고향에 가겠다는 생각이었으니깐.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꼭 고향에 가서 산다산다 하며 집 같은 것도 대수대수 지었됐다. 그래서인지 그 때 마당에 과일도 심지 않았다". "늙을수록 더 사무치게 그림다. 내가 죽으면 고향을 두만강에 뿌려주시오. '고향으로 가시우'하고!"라는²³⁾ 구술이나 '망향산 무덤'과²⁴⁾ 같은 전설로 미루어 볼 때, 이들에게 '망향의식'은 하나의 '신앙'으로까지 자리 잡은 것 같다. 이 망향의식은 중국 조선족의 100여 년 역사에서 몇 세대를 괴롭히며 또 몇 세대의 사유도식과 행위도식에 깊은 영향을 주어 문화심층에 잠재적 요소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²⁵⁾

이러한 망향의식이 본토와의 혈연적 유대관계, 원 문화공간에의 구심력, 그리고 과거지향의 취향에서 오는 것이라면²⁶⁾ 결국 이 망향의식은 혈육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특징지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혈육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잠재적 요소로 하나의 신앙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향토적 서정이 진

23) 「중국조선족이민실록」(연변인민출판사, 1992) 18쪽. 여기서는 김정일의 앞의 책에서 재인용.

24) 전설 '망향산 무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두만강을 건너와 농사를 짓던 농부가 임종시에 고국산천을 바라보도록 높은 산에 관을 세워서 묻어 달라고 아들에게 유언했는데, 그의 아들은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장례를 할 때 그만 관을 거꾸로 세워 묻었다고 한다. 그 뒤 꿈자리가 하도 이상하여 아버지의 무덤을 파 보니까 거꾸로 묻힌 시체의 머리가 고국산천을 바라보려고 절반 이상이나 솟아올랐고 삼년이 못가서 시체가 제대로 서서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25) 김정일, 앞의 책, 44쪽.

26) 김정일, 위의 책, 43쪽.

솔하게 드러난 이러한 민요들을 부르면서 혈육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던 것이다. 즉, 조선족은 부모 처자를 그릴 때면 ‘아리랑’을 불렀으며, 또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모여 ‘노들강변’, ‘양산도’, ‘도라지’
 등과 같은 민요의 노래가락으로 이러한 망향의식을 달랠던 것이다.

이처럼 비기능요가 많이 불리게 된 것은 ‘연변조선족자치주민간예인대회’와
 같은 일종의 조선족예술경연대회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는 ‘연변조선족자치주민간예인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일종
 의 민요경창대회도 개최되어 많은 민간예인이 이 대회를 통하여 새롭게 발굴
 · 등용된다. 이렇게 발굴 · 등용된 민간예인들은 대개 연변가무단이나 연변예
 술학교의 초청을 받아 ‘민요교원’으로 성악가수들에게 조선의 전통민요를 전
 수하였던 것이다.²⁷⁾

이러한 사실들은 민요가 무대에 올려져 공연예술화되어 가는 과정이라 생
 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내용이나 정서가 보다 풍부하고 사설이나 가락
 이 세련된 비기능요가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가창되는 것이다. 실제로 「구
 비문학(하)」에 수록된 민요 가운데 이 책의 부록에 소개된 다섯 명의 ‘민간예
 인’이 가창한 작품을 살펴보면 노동요는 소수에 불과하고, 비기능요가 주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 가창자	노동요	생활 새태요	애정요	의식요	서사요	신민요
조종주	4	5	10	3	5	1
우재강	2	7	9	4		2
신옥화		4	2		1	4
박정렬		5	7	1		1
강성기	2	1	3			
계	8	22	31	8	6	8

뿐만 아니라 조선족이 집거한 조선족 자치현이나 시에는 조선족 문화관과

27)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편, ‘중국 조선민족 구비문학 작가, 예술가 소개’, 「구비
 문학(하)」(민족출판사, 1993). 920-3쪽.

같은 대중 예술관이 있어서, 민간예인들이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조선족 춤이나 노래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민요나 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조선족 마을을 돌며 공연도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비기능요는 민요를 무대에 올려 공연예술화하면서 새로운 민간예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민요를 찾아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민요를 전수하는 의식적인 노력의 과정에서 더욱더 활성화 되었던 것이다.

5. 사회주의 이념과 의식요의 쇠퇴

중국 조선족 민요에는 의식요가 매우 적다. 본고에서 검토한 「조선족구전민요집」·「민요곡집」·「조선족민요곡집」 그리고 「구비문학편(하)」의 네 권의 자료집 가운데에서도 '의식요'를 독립된 분류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자료집은 「조선족민요곡집」과 「구비문학편(하)」의 두 권밖에 없으며, 심지어 가장 많은 민요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민요집성」에서도 '의식요'를 독립된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조선족민요곡집」에서는 '종교풍속의식가요'라는 복합적인 항목을 설정하여 22편의 민요를 수록하고 있고, 「구비문학편(하)」에서는 '의식요'라는 분류항목을 설정하여 14편의 민요를 실고 있을 뿐이어서 그 작품수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다. 더구나 「조선족민요곡집」에 실려있는 22편의 민요 가운데에는 '넝귀기' '래지나칭칭나네' '강강수월래' '축혼가' 등과 같은 유희적인 성격이 강한 민요 8편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하게 의식요로 파악되는 노래는 불과 14편에 불과하며, 「구비문학편(하)」의 14편의 노래 가운데는 토목노동요인 '지정다지기' 노래 2편이 포함되어 있어 순수 의식요로 볼 수 있는 작품은 불과 12편에 불과하다.

자료집에 보이는 의식요를 의식의 종류와 절차에 따라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자료집		조선족 구전민요집	조선족 민요곡집	민요곡집	구비문학 (하)
유 형					
가정 의식요	안택노래		1		1
	성주풀이	2(노동1, 서사1)	3	2(2) (생활풍속4)	2
부락 의식요	지신밧기노래		2		
	고사반 노래		1	(1) (생활풍속)	
장례 의식요	상여노래		7	4(3)(생활풍속5 , 서정2)	7
	달구질 노래				2

* 「민요곡집」의 () 속에 표시한 숫자는 「조선족민요곡집」에 나타나는 작품과 동일한 작품수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족 의식요는 ‘가정의식요’ ‘부락의식요’ ‘장례의식요’만 이 남아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의식요’ 가운데 ‘안택노래’는 「조선족민요곡집」과 「구비문학(하)」에 각각 1편씩 나타나지만 사실은 ‘맹인덕담경’으로 동일한 노래이며, ‘부락의식요’인 ‘지신밧기 노래’와 ‘고사반 노래’는 「조선족민요곡집」에만 보이고, ‘장례 토목요’인 ‘달구질 노래’는 「구비문학(하)」에만 겨우 2편이 나타나는 정도다. 이렇게 볼 때, 조선족의 의식요는 ‘성주풀이’와 ‘상여노래’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을 뿐, 그외 ‘신앙의식요’인 ‘불교의식요’, ‘무속의식요’, ‘속신의식요’ 등은 단 한편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의식요가 쇠퇴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의식의 쇠퇴를 들 수 있다. 의식요는 의식을 거행하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주술적인 사설의 내용을 빌어 가창자가 신이나 신성의 세계에 인간존재의 생존을 위한 소망을 소원하는 노래라고 규정한다면²⁸⁾ 의식요는 그 기능이 의식의 수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 조선족은 사회주

의 체제 속에서 이러한 민간신앙이나 이 민간의식 그리고 민간속신 등을 낚은 풍속 습관이라하여 개혁·청산하여 오늘날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특히 문화대혁명과 같은 전통문화와 외래문화를 전면 부정하는 시기에는 민간에 존재하던 '잡귀신'을 다 쫓아버리고 민간의 산신당이며 절이며 사당 이며까지 다 짓부셔버렸다. 잡귀신들의 상징물이 없어지니 그 앞에서 행하던 제의식도 물론 없어졌고 따라서 한 개 한 세대가 귀신이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다.²⁸⁾

이처럼 중국 조선족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무신론이라는 새로운 신앙체계로 온갖 민간의식이나 민간신앙을 잡신을 숭배하는 미신으로 몰아 배척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의식도 자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의식 자체를 거행할 수 없게 되자 이 의식에 수반된 이들 민요의 전승도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부 의식요는 그 전승이 중단되기도 하고, 일부는 의식의 수행이라는 기능과 분리되어 비기능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족민요곡집」과 「구비문학(하)」에는 '가정의식요'로 분류된 '성주풀이'가 「조선족구전민요집」에서는 노동요와 서사요에, 그리고 「민요곡집」에서는 생활풍습 등으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것은 벌써 '성주풀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의식인 '성주제'와는 거리가 멀어져 노래 그 자체로만 불리는 비기능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구비문학(하)」에서는 의식요로 분류한 '무덤달고', '맹인덕담경'에는 주를 달아서 노래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³⁰⁾ 일반적으로 민요의 창자들은 각 장르에 대해 그 쓰임새를 알고 있으며, 그것은 전승공동체의 굳어진 인식으로 자리잡혀 민간지식화되어 있다고³¹⁾ 한다면, 이처럼 노래의 쓰임새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노래가 그 기능으로부터 멀어져 민요의 전승공동체들 사이에는 더 이상 기능요로 인식되지

28) 박경수, 앞의 책, 58쪽.

29) 김경일, 앞의 책, 220쪽.

30) 각 노래에 붙은 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덤달고-이 노래는 무덤자리를 달고로 다지며 부르는 노래임.

맹인덕담경-소경 무당이 액을 물리치고 복을 빌며 덕담을 할 때 부르는 노래.

31) 강동학, 「민요의 현장과 장르의 기능」, 「민요와 민중의 삶」(한국역사민속학회, 우석출판사, 1994), 34쪽.

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능요가 쇠퇴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는 맑스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민요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요에 대한 비판적 수용론 때문이라 생각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의 노래인 민요는 민주성, 진보성, 혁명성을 띠고, 인민의 세계관과 입장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이 평가하여 오늘날 까지도 그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³²⁾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요는 당해시기의 사회 역사적 조건과 민요 창작자 및 민요 전승자들의 계급적 사상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바로 민요 작품에 끼어든 종교미신사상 유교관념 및 기타의 불순한 사상 인소들이며, 이것들은 인민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데 불리하게 되고 사회주의적 문화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이다.³³⁾ 그러므로 이러한 제약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의식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신앙의식요인 불교의식요, 무속의식요, 속신의식요 등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민요를 수집 정리할 때 제외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대혁명 이후에 가장 앞선 시기에 간행된 「조선족구전민요집」에는 의식요라는 분류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 가운데도 의식요는 거의 없다. 또 「조선족민요곡집」에는 '종교풍속의식가요'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14편의 의식요를 수록하였으나 이 「조선족민요곡집」을 침삭하여 새로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민요곡집」에서는 '의식요'를 하나의 분류항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일부를 풍속가요와 서정가요 속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맑스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민요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요에 대한 비판적 수용론 때문이라 생각된다.

32) 조성일, 「민요연구」(연변인민출판사, 1983). 378쪽.

33) 조성일, 위의 책, 379-81쪽.

6. 마무리

본고는 중국 조선족의 민요를 노동요·비기능요·의식요로 나누어 어떤 유형의 민요가 가장 우리 민요의 전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떤 유형의 민요가 가장 많이 변이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이러한 전통의 지속과 변이된 양상을 보이는 까닭을 조선족의 삶과 관련지어 해명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간추려 마무리로 삼는다.

첫째, 중국 조선족의 구전민요 가운데 노동요는 그 유형별 전승 양상이 우리 민요의 전통을 지속하면서 전승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노동요가 그러한 특징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농업노동요 가운데에서도 특히 논농사와 관련된 '논농사요'가 그 양에 있어서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민요를 연행했던 조선족들은 절대 다수가 농민들로서 이들은 동족끼리 촌락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두레'와 같은 공동 노동조직을 구성하여 함께 황무지를 개간하고 경지를 정리하며 모를 심고 기음을 매는 등 생산활동을 같이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이런 노동요들은 그들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전승되어 왔던 것이다.

둘째, 중국 조선족들이 평소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민요는 사설이나 가락이 세련되고 향토적 정서나 민족적 정서가 짙게 배어있는 서정적인 비기능요들이며, 이러한 비기능요는 양적으로는 오히려 노동요보다도 더 많이 남아 전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망향의식이 하나의 신앙처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민족의 정서와 향토적 서정이 진솔하게 드러난 이러한 민요들을 부르면서 혈육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던 것이다.

셋째,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는 민요를 무대에 올려 공연예술화하면서 새로운 민간예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민요를 전수하는 의도적이고 끈질긴 노력의 과정에서 이러한 비기능요는 더욱더 활성화 되었던 것이다.

넷째, 조선족의 의식요는 가정의식요인 '성주풀이'와 장례의식요인 '상여노래'만 남아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을 뿐, 그외 '신앙의식요'인 '불교의식요', '무속의식요', '축신의식요' 등은 단 한편도 보이지 않을 정도

로 쇠퇴하였다.

다섯째, 의식요는 그 기능이 의식의 수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의식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중국 조선족은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온갖 민간의식이나 민간신앙을 잡신을 숭배하는 미신으로 몰아 배척하게 되자 이와 관련된 의식도 자연히 쇠퇴하였고, 이 의식에 수반된 이들 민요의 전승도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의 의식요들은 전승이 중단되기도 했고 일부는 의식의 수행이라는 기능과 분리되어 비기능요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여섯째, 의식요가 쇠퇴한 또 다른 이유는 맑스주의적 원칙에 입각하여 민요를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요에 대한 비판적 수용론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민의 노래인 민요는 그 사회적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민요는 당해시기의 사회 역사적 조건과 민요 창작자 및 민요 전승자들의 계급적 사상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의식요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민요를 수집 정리할 때 제외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들은 중국 조선족의 구전민요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들을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 조선족들은 극한적인 가난과 일제의 가혹한 압박과 수탈을 피하여 징든 고향과 고국산천을 버리고 중국의 동북지역으로 이주하여 황무지를 개간하고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매우 특이한 체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특이한 체험을 반영한 민요들이 새롭게 생성되어 그 당시 민중들 사이에 널리 불리게 되었는데, 중국 조선족 민요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성된 민요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민요의 생성과 전파 수용 변화 등에 관한 고찰은 후고로 미룬다.